

이세도타이 유적

아키타현 북부에 자리한 이세도타이 유적에는 4,000 개 이상의 돌을 사용한 4 개의 환상 열석(거대한 선돌이 둥글게 배치된 유구)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곳의 환상 열석은 기원전 2,000 년 무렵 200 년에 걸쳐 축조되었으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상 열석 주변에서는 다양한 양식과 디자인의 토우 등 토제품이 대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돌의 산지

환상 열석은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시라카미 산지가 바라보이는 고지대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상 열석에는 요네시로강과 오사루베강 등 이 지역을 흐르는 강에서 가져온 다양한 종류의 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돌들은 최대 5km 떨어진 거리에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의 정비

환상 열석을 조사한 결과, 돌을 배열하기 전에 부지가 평탄하게 정비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솟아오른 땅은 깎고 움푹 팬 곳은 메우는 당시의 평탄화 작업은 돌이나 나무로만 만든 단순한 도구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환상 열석 주변의 건물

환상 열석 바깥쪽 가장자리 주변에서 기둥으로 지지한 건물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무슨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사에 따르면 주거지라기 보다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서 주변 지역의 여러 마을이 공유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 건물은 시신을 매장할 준비를 할 때 사용되었을 거라는 추측도 존재하는데, 환상 열석 주변에서 무덤 구덩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추측으로 여겨집니다. 토양이 산성이기 때문에 인골은 남아있지 않지만, 토우와 부장품이 여러 무덤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몇몇 환상 열석 주변에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구멍이 발굴된 상태 그대로 남아 있으며, 건물의 규모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토우

이세도타이 유적에서는 사람의 모습을 한 독특하고 다양한 표정의 토우가 200 개 이상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토우는 납작한 판과 같은 모양의 토우(판상 토우)부터 내부가 비어있는 토우(중공 토우)까지 그 양식과 디자인이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토우는 손발이 확실하지 않고 추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반면, 정교한 토우는 섬세한 문양이나 강조된 곡선 등 신체의 각 부분을 구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토우에는 의도적으로 훼손된 흔적이 있는데, 이는 제사를 지낼 때 기도를 드리는 방식의 하나로 일부러 파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세도타이 유적 조몬관

유적 입구에 있는 이세도타이 유적 조몬관[링크]에서는 밝은 조명을 비추는 유리 상자에 출토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명은 토우 등 토제품의 표정과 복잡한 형태를 좀 더 선명하고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강조합니다. 또한 이 유적과 환상 열석의 개요를 소개한 전시에는 고고학적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정보가 발굴 당시의 사진과 함께 크게 전시되어 있으며 일본어와 영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세도타이 유적 조몬관에서 열리는 공예 체험에 참가하면 장식품이나 토기를 직접 만들어볼 수도 있습니다(예약 필요). 이 외에도 T 셔츠나 토우를 테마로 한 기념품 등 폭 넓은 상품이 갖춰진 뮤지엄 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시실 관람 시에는 입장료가 필요하지만, 뮤지엄 숍과 로비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로비에서는 환상 열석과 관련된 짧은 동영상도 상영되며 영어 등의 여러 언어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유적

이 외에 일본 북부에 있는 대규모의 선사 유적으로는 기우스 주제묘군[링크](홋카이도)과 오유[링크](아키타현), 와시노키[링크](홋카이도), 고마키노[링크](아오모리현), 오모리카쓰야마[링크](아오모리현)의 환상 열석 등이 있습니다.